

# 결핵홍보의 정석!

## 부산시&결핵협회 캠페인 현장

글과 사진 박연숙(본지기자)

어떤 병이든 그렇겠지만, 결핵 역시 예방 및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BCG 접종을 하고,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엑스레이 검진을 받게 된다. BCG 접종을 받더라도 그 예방 효과는 15년 안팎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진을 받으면 결핵 치료에 있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상식조차도 일반인에게는 매우 낮설다. 결핵은 못살던 시





홍보캠페인에 참가한 이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사직구장에 홍보 패널을 전시해 오가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체험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경기 시작 전 경기장 내에서 관람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있다.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주는 참가자들.

절의 질병이고, 지금은 사라진 질병이란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잊혀져가는 질병 ‘결핵’ 홍보를 위해 대한결핵협회는 2007년부터 월 1회 거리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부산지부는 부산시와 함께 부산사직구장에서 결핵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홍보 캠페인 당일엔 사직구장에서 한화와 롯데의 경기가 있는 날로, 경기 시작 전인 5시 반경부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결핵협회 부산지부 직원들을 비롯해 부산시청 결핵 및 에이즈 관계자, 각 구 보건소 결핵실 담당 자들과 TB도우미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결핵 이외에도 에이즈 및 신종플루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가져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구장을 찾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결핵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한데 모여 결핵퇴치의지도 다지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이번 캠페인은 사직구장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와 맞물려 캠페인 홍보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